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설교

여러분도 가끔 “아… 나 진짜 망했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시험을 망쳤거나, 친구와 싸웠거나, 부모님께 혼날 일을 했을 때 “지금부터 다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들려주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돼요. 아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만큼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 옷과 반지를 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왜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했다고 자격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다시 품어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께 가기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 달려오셔서 우리를 먼저 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실패할 때 자꾸 스스로를 포기하려 해요.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나를 실망스러워하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뛰어오셔서 우리를 껴안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요. 친구들,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하자” 하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작고 약한 내 모습 다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14:25~35절 다같이

설교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마음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작고 약한 내 모습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 나라로 떠났던 아들을 다시 품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지만,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왜 아들을 꾸짖지 않고 달려가 안아 주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2. 요즘 나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더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어떤 걸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